



소개

리베르소의 기원

4 가지 테마를 통한
아이코닉한 타임피스의 기원

주요 특징:

- **리베르소:** 스포츠 워치에서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 된 시계
- **시대 정신의 정수를 담아낸 시계:** 현대적인 아르데코 스타일, 스포츠 DNA 및 혁신의 융합
- **혁신적인 작품:** 대담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기능으로 워치메이킹을 새롭게 정의했으며 90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혁신적인 시계

2025 년, 예거 르쿨트르는 1925 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장식미술 박람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100 주년을 맞이하여 리베르소의 탄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아르데코 디자인 운동이 시작되었고, 아르데코 스타일로 완성한 리베르소의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았습니다. 1930 년, 인도 폴로 경기장에서의 전설적인 아이디어로부터 탄생한 리베르소는 이제 진정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용적이고 우아한 실루엣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베르소는 본래 기능과 형태를 완벽하게 결합한 스포츠 시계로, 경기장에서 착용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습니다. 리베르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 스포츠에서 사용하기 위해 탄생한 최초의 목적을 넘어 그 이상으로 거듭났습니다. 1931 년 이래로 기존 디자인과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 온 리베르소는 아르데코 라인과 균형 잡힌 디자인을 간직한 채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1990 년대에 메종이 하이 컴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기술적 정교함을 향상하면서 이러한 진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독특한 양면 케이스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보기 드문 디자인의 리베르소는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향과 사회적 변화, 기술 발전 속에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변함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현대성: 활기 넘치는 20 년대에 탄생한 모델

리베르소의 기원은,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했던 눈부신 문화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제 1 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20 년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며, 예술과 문화가 크게 융성하고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이 이뤄졌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은 부모의 엄격한 관습에 저항하고 새로운 부를 받아들이며 쾌락주의와 무절제를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는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파티는 더 성대해졌고, 속도는 더 빨라졌으며, 건물은 더 높이 올라갔고, 도덕성은 더 해이해졌다.”

더욱 관대하고 새로워진 도덕성은 과감한 복장과 행동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한적인 관습은 무시되었으며, 현대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추세에 맞춰 남성용 시계는 주머니에서 손목으로 옮겨갔습니다.

실험적 예술 운동(초현실주의, 다다이즘, 이탈리아 미래주의, 독일 표현주의)은 획기적인 문학 스타일(어니스트 헤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버지니아 울프, 랭스턴 휴즈)과 함께 번성했습니다. 활기찬 낙관주의와 대담한 실험 분위기를 담은, 새로운 음악 형태인 재즈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 등장하여 이 20 년대를 정의했습니다.

경제 호황에 힘입어 자동차, 항공,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기술의 영향이 느껴졌습니다.

- 헨리 포드(Henry Ford)의 모델 T(Model T)는 자동차 소유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
- 찰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는 1927 년에 최초로 단독 대서양 횡단 비행을 했습니다.
- 할리우드는 1927 년에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도약했고, 새로운 녹음 기술은 라디오에 혁명을 일으켜 사람들은 집에서 오락거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 1920 년대 후반, 재즈 트럼펫 연주자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은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 문화의 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근대 시대는 활기 넘치는 20 년대, 즉 재즈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비범함을 찬양하던 시대였으며, 그 정신은 다음 10 년의 시작과 함께 ‘평범하지 않은’ 리베르소의 컨셉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대의 대담함에서 모던함으로 탄생한 리베르소는 변화하는 세상의 정신을 완벽하게 담아내며 독창성의 혁명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회중시계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던 시절, 손목시계로 출시되어 시계를 착용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컬러 다이얼과 깔끔한 라인의 인덱스로 기존 관습에 도전하며, 당시 지배적이었던 실버 다이얼과 로마 숫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리베르소는 단순한 시계를 넘어 대담하게 시대를 앞서간 아이콘으로, 한 시대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구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르데코 스타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미학

1920 년대에 등장한 혁신적인 미학인 아르데코는 극적인 삶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화된 당대의 시대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전쟁 전, 정교한 장식의 몽환적인 낭만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고, 질서와 기하학, 순수한 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미학의 간결한 단순함은 낙관주의와 밝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디자인 운동으로서 아르데코는 건축, 패션, 그래픽 아트 등 모든 분야를 아울렀으며, 여객선에서 골드 시가렛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에 적용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깔끔한 모양과 금속, 새로 개발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기계 시대의 정신을 구현했습니다. 아르데코는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아즈텍 건축 양식을 참고했으며, 프랑스 입체주의(Cubism), 네덜란드 신조형주의(De Stijl), 이탈리아 미래주의(Futurism)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아르데코는 재즈 시대의 쾌락주의적 분위기를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아르데코라는 용어는 1960 년대 후반에야 만들어졌지만, 그 이름은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1925 년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 장식미술 박람회(Exposition Inter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아르데코 건축 양식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뉴욕은 크라이슬러 빌딩(1930 년)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1931 년)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주요 개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부터 쿠바, 뭄바이, 마이애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시에 아르데코 건축의 사례가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 이면에 있는 아르데코의 정교함은 형태가 기능을 표현해야 한다는 바우하우스 원칙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목적, 실용성, 우아함의 균형을 이루며, 리베르소는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언뜻 보기에 그 기하학적 구조는 분명히 직선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둥근



형태와 미묘한 곡선이 드러납니다. 아르데코의 원칙과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는 황금 비율을 결합한 디자인은 리베르소의 매력이 90 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르데코 스타일로 제작된 리베르소는 아르데코의 대담하고 현대적인 미학을 보여주는 시대를 초월한 증거입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통을 깨고 시계 업계를 지배하던 원형 디자인에 대담하게 도전했습니다. 리베르소는 깔끔한 라인과 기하학적 형태, 간결한 우아함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담아냄으로써 변화를 앞둔 세상의 낙관주의를 반영합니다. 형태와 기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리베르소는 세련되고 혁신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아르데코의 정수를 구현하여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DNA: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의 부상

1920 년대 해방 정신으로 인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는 대중적인 여가 활동이자 사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리비에라에서의 여름 휴가는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선택과 함께 유행이 되었습니다. 코트다쥐르로 향하는 호화로운 특급 열차인 르 트랑 블루(Le Train Bleu)는 세르주 디아길레프(Serge Diaghilev)의 발레 뤼스(Ballets Russes)를 위해 니진스카(Nijinska)가 선보인 발레에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스포츠를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로 변화시켜 가정에서도 해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930 년 최초의 축구 월드컵과 같은 이벤트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운동 선수들은 남녀 모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테니스, 골프, 수영, 요트, 스키와 같은 취미에 대한 열풍은 패션 변화에도 반영되었습니다.

- 가브리엘 샤넬은 대담하게도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 후에 원저 공작이 되는 영국 황태자는 아가일 점퍼와 트위드 플러스 포스와 같은 '골프 복장'을 대중화했습니다.
- 테니스 선수인 르네 라코스테(René Lacoste)는 코트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딴 고전적인 반팔 코튼 니트 셔츠를 디자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Sporting Gentleman)'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했습니다. 스타일과 대담함, 화려함이 돋보이는 존재로, 르망 24 시간 레이스(Le Mans 24 Hour Race, 1923 년에 시작)의 전설적인 '벤틀리 보이즈(Bentley Boys)'와 전 세계 컨트리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부유한



폴로 선수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워치메이킹이 아직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잘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에게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오래된 팀 스포츠 중 하나인 폴로는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전파되었고 귀족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19 세기 영국의 차(tea) 농장주들이 이를 영국에 소개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허링햄 규칙(Hurlingham Rules)’으로 제정된 이 스포츠 규칙은 폴로가 영연방과 그 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 군 장교들이 열렬한 폴로 선수로 활동하면서 폴로가 이곳 사교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30 년, 스위스 사업가 시저 드 트레(César de Trey)는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여기에서 리베르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츠 DNA 로 만들어진 리베르소는 스포츠 엘리트를 위해 제작된 시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스포츠가 신분을 정의했던 시대에 태어난 리베르소는 탁월한 내구성과 세련된 우아함을 결합하여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독창적인 회전형 케이스는 스포츠를 즐기는 신사의 활동적이고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시계의 필요성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리베르소는 단순한 시계를 넘어 스포츠, 성능, 스타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수한 혁신: 기계 시대의 정신

1920 년대에는 전례 없는 경제 호황에 힘입어, 제 1 차 세계대전 중 이루어진 기술 발전을 활용해 일상생활을 변화시킨 놀라운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어디에나 존재하는 발명품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10 년 동안 신호등, 컨버터블 자동차, 주크박스, 선글라스 등 수많은 혁신 기술이 세상에 소개되었습니다.

1833 년, 앙투안 르쿨트르가 메종을 설립했을 당시의 발명 정신을 이어받은 르쿨트르 매뉴팩처에서, 워치메이커들은 1925 년에 듀오플랜 무브먼트를 개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개발을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소형화가 가능해졌고, 1929 년에 칼리버 101 이 탄생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매우 작은 핸드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28 년, 매뉴팩처는 기압 변화에 의해 구동되는 혁신적인 모델인 애트모스의 개발로 또 하나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를 여행하던 중 시저 드 트레는 폴로 경기에 열정적이었던 영국 장교들로부터 혹독한 경기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드 트레는 자크-데이비드



르쿨트르(Jacques-David LeCoultre)와 협력하여 시계 컨셉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예거 SA와의 인연을 통해 프랑스 산업 디자이너 르네-알프레드 쇼보(René-Alfred Chauvot)에게 회전 기능이 있는 케이스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1931년 3월 4일, 쇼보는 “지지대에서 밀어서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계”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특허 번호 712.868). 그해 말, 드 트레와 르쿨트르는 그의 디자인 권리를 인수했고, 11월에는 리베르소(라틴어로 '나는 회전한다'라는 뜻)라는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그들은 케이스 제작자인 뱅거(Wenger)를 고용하여 케이스를 슬림한 직사각형으로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예거와 르쿨트르는 타반 칼리버를 사용하여 1933년에 출시된 자체 직사각형 무브먼트인 칼리버 410을 개발했습니다. 1931년 가을, 드 트레와 르쿨트르는 리베르소를 포함한 예거 르쿨트르 제품을 상업화하기 위해 스페셜리테 오를로제(*Spécialités Horlogères*)를 설립했습니다. 1931년 겨울에 처음으로 리베르소가 출시되면서, 영원한 아이콘이 탄생했습니다.

리베르소는 순수한 혁신으로 제작된 시계입니다. 20세기 초, 그랑 메종은 워치메이킹의 매우 중요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스타일로 명성을 쌓음으로써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했습니다. 1931년까지 메종은 리베르소만큼 획기적인 시계 제작이라는 야심 찬 도전에 응할 수 있는 유일한 매뉴팩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925년 듀오플랜, 1928년 애틀모스, 1929년 칼리버 101과 같은 혁신적인 작품에서 이미 입증된 독보적인 발명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베르소를 통해 혁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그랑 메종은 전통적인 골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테이브라이트 스틸 소재로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이렇듯 대담한 선택으로 우아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매뉴팩처의 선구자적 정신과 아방가르드한 비전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아이콘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

리베르소는 워치메이킹의 세계를 변화시키며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포켓 워치가 주류를 이루던 시절, 과감하게 손목시계를 선보이며 시계 착용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직사각형 형태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적인 원형 시계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눈길을 사로잡는 컬러 다이얼과 인덱스 마커를 사용함으로써 로마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기존의 실버 다이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천재성은 기계적 독창성과 세련된 우아함을 결합한 전대미문의 상징적인 회전형



케이스에 있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칼리버는 생산 초기부터 직사각형 케이스의 곡선을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대화하여 칼리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독창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1931 년, 이 모델은 파인 워치메이킹의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독특한 직사각형 케이스에는 그 형태에 맞춰 디자인된 칼리버를 장착했으며, 충격과 습기,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칼리버를 보호하기 위해 전용 케이싱 링에 고정했습니다. 뒷면의 케이스백은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의 장인들을 위한 캔버스가 되어 맞춤 제작한 에나멜링과 잉그레이빙, 미니어처 페인팅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출시 이래로 트렌드를 선도해 온 리베르소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을 통해 대담하고 획기적인 시대 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리베르소는 현대성과 아르데코의 우아함, 스포츠 DNA, 획기적인 혁신을 완벽하게 융합하여 당대의 정수를 담아냈으며 90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격변의 시기에 태어나 폴로 선수의 특별한 요구에 맞춰 제작된 이 시계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기술력으로 단순한 시계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리베르소는 20 세기 디자인의 영원한 아이콘으로,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항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합니다.



1931 폴로 클럽 소개

리베르소의 탄생을 기리는 1931 폴로 클럽은 리베르소의 탄생에 영감을 준 폴로 세계에 경의를 표하며 그 시대의 정신을 담아냅니다. 이 특별한 시계의 탄생으로 정점을 찍었던 10 년은 전례 없는 경제 호황과 기술 혁신의 시대였습니다. 의복과 음악에서 새로운 유행이 탄생했으며, '아르데코'라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운동을 촉발한 사회적, 문화적 격변기였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체육 활동에서 여가 활동으로 진화하고, 스포츠 클럽이 전 세계적으로 사교 생활의 중심이 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858-1947 년 당시 영국령 인도에 주둔하던 장교들은 격렬한 폴로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파손되지 않는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시계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용적인 요구에 독특한 해결책을 제시한 리베르소는 오늘날 아르데코 디자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리베르소 소개

1931 년, 예거 르쿨트르는 20 세기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한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위치는 세련된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형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 년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79 개의 다양한 칼리버를 탑재하고 39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메탈 소재의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리베르소가 출시한 지 90 여 년이 지난 오늘날, 리베르소는 탄생에 영감을 준 모던함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위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위치메이커의 위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위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위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